

박인비, “은퇴? 아직은... 골프가 즐겁다”

“에비앙 대회 남겨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7승 그 중 메이저대회 7승, 커리어그랜드슬램, 최연소 명예의 전당 입회 그리고 116년 만의 올림픽 금메달...

골프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지난 22일 끝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골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세계 골프 역사상 전무후무한 커리어 골든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골프선수로서 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박인비의 은퇴를 접치는 이들이 많았다.

국내 여자골프 선수로서는 드물게 이미 2014년 결혼도 했다.

골프만 놓고 보면 더 이상의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그가 계속해서 골프채를 쥘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박인비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세간의 관심과 예측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놨다.

일단 박인비에게 은퇴는 당장에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다.

박인비는 은퇴와 관련된 질문에 “아직 나이기도 지금도 골프가 즐겁고, 골프를 하고 싶다”며 “(선수생활이) 언제까지라고 정해놓기 보다는 준비가 됐을 때 은퇴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이루고, 많은

이들이 은퇴를 생각했을 때 박인비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고민했다.

지난 시즌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과 함께 명예의 전당 입회를 확정지은 박인비는 올 시즌 부상과 슬럼프를 동시에 겪었다. 좀처럼 하지 않던 컷 탈락은 물론 대회를 포기하는 상황도 있었다.

박인비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번 시즌에는 목표의식이 강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선수로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난 뒤 찾아오는 슬럼프는 골프여제도 피할 수 없었다. 그런 그에게 올림픽은 다시 골프채를 잡고 도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

그는 “끊임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야했는데 올림픽은 분명히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올림픽을 통해 또 한 단계 성장한 박인비에게 여전히 동기부여는 충분하다.

바로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대회와 LPGA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과의 경쟁이다.

우선 박인비는 메이저타이틀을 모조리 갖고는 있지만 한 가지 개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바로 에비앙 마스터즈 타이틀이다.

박인비는 지난 2012년 에비앙 대회 우승을 차지했지만 메이저대회로 승격되기 전의 우승이었다. 이로 인해 그의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인비는 “에비앙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만 메이저대회로 승격되고 나서는 우승을



박인비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박인비 프로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입에 물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못했다. 에비앙 대회라는 숙제를 남겨 놓은 것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박인비가 주춤한 사이 LPGA 무대를 장악한 리디아 고(19·뉴질랜드), 에리아 주타누간(21·태국), 브룩 헨더슨(19·캐나다) 등 젊은 선수와의 경쟁도 은퇴 생각을 접게 만들었다.

박인비는 “앞으로도 젊은 층의 강세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베테랑 선수들도 층이 단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승할 수 있다. 젊은 층의 기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골프는 나이와는 상관없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민근 기자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단체전은 은·김은정 동 획득

고창군청 여자유도부의 활약이 눈에 띈다. 고창군청 여자유도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동해시에서 열린 '2016 전국 실업유도 선수권대회'에서 김은정(-70kg) 선수가 동메달을,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은정(-70kg) 선수는 이에 앞서 '제9회 청풍기 유도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한바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 실력을 입증하며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또한 단체전에서는 조아라, 박효주, 황희정, 김은정, 임정수 선수가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뤘고 은메달을 획득했다.

올해는 전국 실업유도 최강전 개인전 +78kg급 1위, 단체전 2위에 입상했고, 제9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 개인전 +78kg급 2위, -63kg, -70kg급 3위, 단체전3위에 입상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한체육회, 수영 국가대표 물가 의혹 진상조사

대한체육회가 수영 국가대표 선수 물가 카메라 파문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 엄중하게 책임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지난 2013년 수영 국가대표 A선수가 진천선수촌 수영장 옆 여자 탈의실에 물가카메라를 설치하고, 수년간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체육회는 정형숙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진상조사단은 내·외부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과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사건의 진상을 알고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지도자와 선수촌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체육회는 의혹이 불거지고 최근 진천선수촌과 태릉선수촌 내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대해 육안조사를 실시했다. 30일에는 전자탐지기를 동원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김민근 기자



최강희 전북현대 축구단 감독

최강희 감독 “사상 첫 무패우승 욕심 있다”

전북현대 FC서울전 3-1 승리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전북 현대의 최강희 감독이 K리그 사상 첫 무패 우승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전북은 28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28라운드에서 레오나르도의 2골을 앞세워 FC서울을 3-1로 제압했다.

전북은 28경기 무패(17승11무·승점 62)로 K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남은 10경기에서도 패하지 않으면 K리그가 출범한 1983년 이래 처음으로 무패우승에 성공한다.

최 감독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표현은 잘 안 한다”면서 “선수들이 잘해주니 개인적으로 욕심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다른 시즌보다 더

집중해주고, 이길 수 있다는 좋은 분위기로 팀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며 “축구는 의외성이 높다. 슈팅을 30개 해도 1골을 한 팀에 질 수 있다. 분명 욕심은 내겠지만 경기 외적인 기록에 신경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이날 승리로 2위 서울(15승4무9패·승점 49)과의 격차를 13점으로 벌렸다. 맞수와의 대결에서 기본 좋은 승리를 챙겨 K리그 3연패 전망도 밝았다.

최 감독은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가 정규리그의 분수령이었다. 서울도 상승세였고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다”며 “우승을 하기 위해, 큰 팀이 되기 위해 이런 라이벌전을 꼭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이어 “서울의 데얀이 빠진 점과 첫 골

이 빨리 터진 점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며 “서울의 측면을 봉쇄하고 미드필드 압박싸움에서 이겨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인 선수들까지 수비기담을 적극적으로 해줘 의외로 쉽게 이겼다”고 돌아봤다.

전북은 올 시즌 서울과의 세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이겼다. 개막전에서 최용수 감독이 이끌던 서울에 1-0으로 승리했고, 지난달 황선홍 감독의 서울에도 3-2로 이겼다.

최 감독은 “최용수 감독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은 전술적으로 움직임이 다르다. 상대가 내려서면 우리도 기다리며 한 골 승부를 해야 해 고전하다 실패한 경기도 있었다”며 “오늘도 스리백을 쓴 다거나 하는 소극적인 경기까지 생각했지만 우리도 분위기가 좋고 힘이 있으니 선수들을 믿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